

英美詩에 나타난 바다 이미지

박 옥 선*

The Sea Image in English and American Poetry

Ok-Sun Park*

Abstract

The sea is an important background and meaningful theme with varied imagery in English and American poetry, and this is to consider the various poetic images of the sea.

The most frequent sea image in those poems is the human life; the ocean itself is regarded as the human society, and sailing, as the man's living. The sea has also the image of a shelter or an ideal place where a man wishes to have after a long voyage of life. And in this connection, the ocean has a metaphorical meaning for the next world or the eternal life which the man will face after death.

The poets often sing in their poems that the sea is a miraculous and mysterious world. And there are many poems in which the sea is treated as sorrow and anxiety, and furthermore as fate or death. It seems that these images are caused by a thought that the sea can never be brought under the men's control.

It can be inferred that the sea can be told with more various metaphors and deeper meanings even in modern English and American poetry, from the diversity of the sea images in the preceding ages.

I

문학작품의 배경이나 중심모티프로써 바다를 설정하는 것은 이미 진부한 것이 되었고 또한 시적 심상으로써 바다가 가지는 가치도 빛바랜 것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랜 문학사를 통해서 바다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은 바다가 인간의 삶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언제나 가까이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영미시에 나타난 바다 이미지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시인이 선택한 시의 주제에 따라서 조금씩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바다 자체가 주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함축적인 이미지에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가까이 하면서도 인간에게 결코 제압당하지 않는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영문학 전공)

어떤 엄청난 힘을 인식하게 한다든지, 자연 그 자체로서의 위용을 가지고 있다든지, 해양을 무대로 일어난 온갖 역사적 상황이 인생살이 그 자체를 유추하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상식적인 이해이지만 시인들이 나타내고자 한 이러한 여러가지 면모의 바다가 과연 어느 정도로 다양할까 하는 것을 확인, 정리해 보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미시는 대충 16세기 이후와 모더니즘 이전의 시에 국한하였고 그 기간에 속한다 하더라도 해양을 배경으로 하거나 항해를 주제로 하고 있는 시를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밖에도 도시의 본래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메타포로서 바다를 이용하고 있는 시를 포함하였다.

이들 영미시에서 바다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 묘사되어 있으며, 시인이 바다라는 배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며, 나아가서 바다가 함축할 수 있는 가능한 이미지들은 어느 정도로 다양한 것일까 하는 것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I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바다라는 용어를 쓸 때는 대체로 그 바다가 가지는 뽕념적 이미지, 즉 광활하다는 데서 오는 포괄성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따라서 그것은 인생이라는 복잡하고도 심오한 의미와 동일시 되게끔 되어지며 또한 자연 그 자체로서 인간이 안길 수 밖에 없는 궁극적 안식처가 되고 나아가서 영원의 세계와도 맞물리게 된다. 물론 항해자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죽음을 예상하게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은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인간의 숙명적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시인이 자신의 시의 주제와 연관시켜 사색하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인간의 삶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시인이 바다를 단적으로 표현할 때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인생 그 자체라는 것이며, 한 마디로 "Sailing o'er life's solemn main" (Henry Wadsworth Longfellow : A Psalm of Life)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 인생살이는 곧 항해이며 인간사회는 곧 바다라는 것이다.

바다를 인간이 영위하는 삶의 도정으로 나타내고 있는 시를 보자.

My road leads me seawards
To the white dipping sails.

.....

My road calls me, lures me
West, east, south, and north:

Most roads lead men homewards,

My road leads me forth. (John Masefield: Roadways)

1) 인용된 시작품은 작가와 시제목 만을 밝히기로 한다.

인간이 제각각 부여받은 삶에는 나름대로 걸어가야 할 다양한 길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곧 스스로 가꾸고 개척하여 종착점을 향해 나아가야 할 길인 것이다. 바다라고 하는 무한한 자연의 배경과 영원한 시간의 흐름 속에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의 슬픔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한다.

The tide rises, the tide falls
The twilight darkens, the curlew calls;
Along the seasands damp and brown
The traveler hastens toward the town,
And the tide rises, and the tide falls.

(Longfellow: Tide Rises, the Tide Falls)

조수의 간만은 인간의 한 세대가 왔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흔히 비유되고 있는데 인생이라는 밀물과 썰물의 일회적 현상이 영접을 통해 반복되는 조수와 대비됨으로써 인생무상의 느낌을 한층 절실하게 하면서 영원성에의 갈구를 더욱 애절하게 느끼게 한다. 셰익스피어는 일찌기 조수의 반복된 흐름을 윤희사상의 이해를 위한 도구로 이용한 바 있는데²⁾ 그의 소넷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Like as the waves make toward the pebbled shore,
So do our minutes hasten to their end;
Each changing place with that which goes before, (Sonnet 60)

조수가 해변으로 밀려왔다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일회적 현상은 만물의 생성과 소멸, 나아가서 인간의 탄생과 죽음으로 결과되는 한 세대를 의미하며 이러한 조수의 반복은 연속적인 세대의 대물림을 뜻한다. 시간이 영접을 향해 흘러가는 것은 이러한 생명의 나고 죽는 현상의 반복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생성과 소멸 내지 영고성쇠의 이미지는 일출과 일몰에도 비유되는 동일이미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를 이어 연속되는 인간의 삶은 시간 그 자체의 흐름과 동시적이면서도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이 고대로부터의 인생관, 시간관이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와 같이 바다의 조수는 시간은 물론 인생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주 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안식처

시인이 보는 바다는 생활의 터전으로서 존재하는 어부의 바다보다는 훨씬 낭만적인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그리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영원히 잠들고 싶은 내세의 안식처로도 묘사되고 있다. 육상에서의 단조로운 일상을 벗어나 가고 싶은 아름답고 멋진 세계로도 나타나 있다. 그것은 판에 박은 일상에서의 탈출구로서 안성맞춤인 것이다.

2) J. W. Lever, *The Elizabethan Love Sonnet* (London : Methuen, 1956), pp. 252-3.

박 육 선

O to sail in a ship!
To leave this steady unendurable land.
To leave the tiresome sameness of the streets,
the sidewalks and the houses,
To leave yo O you solid motionless land, and entering a ship.
(Walt Whitman: O to Sail in a Ship)

항해 자체는 잠에, 항해중인 배는 침대에 비유되기도 한다.

My bed is like a little boat:
Nurse helps me in when I embark:
She girds me in my sailor's coat
And start me in the dark. (Robert Louis Stevenson: My Bed is a Boat)

피곤하고 지친 방랑자를 고향의 바닷가에 실어다 줄 배의 이미지와 연인의 아름다움이 이와 같은 맥락으로 동일시된다.

Helen, thy beauty is to me
Like those Nicean barks of yore,
That gently, o'er a perfumed sea,
The weary, wayworn wanderer bore
To his own native shore (Edgar Allan Poe: To Helen)

바다는 육신의 안식처도 되지만 정신적 안식처로도 나타나 있다. 연인이나 어머니는 정신적 안온을 가져다 주는 가장 보편적인 이미지이며 바다는 이들 이미지와 동등시되어 있다. 바다는 곧 연인이며 어머니다.

I will go back to the great sweet mother,
Mother and lover of man, the sea
.....
O tender-hearted, O perfect lover,
Thy lips are bitter, and sweet thine heart (Algernon Charles Swinburne : The Sea)

W.B. Yeats는 호수속의 섬 Innisfree를 이상향으로 설정하고 이 영원한 꿈의 나라로 가기를 회귀한다.

I will arise and go now, and go to Innisfree,
.....

英美詩에 나타난 바다 이미지

And I shall have some peace there, for peace comes dropping slow,

.....

I hear lake water lapping with low sounds by the shore;

While I stand on the roadway, or on the pavements gray,

I hear it in the deep heart's core. (The Lake Isle of Innisfree)

Yeats에게 있어서 호도 Innisfree가 이상향이듯이 바다의 시인 Masefield에게 있어서 꿈의 나라, 영원한 쉼터는 바다이다. 그는 인생의 긴 여정의 끝에 가지게 될 안온한 잠, 달콤한 꿈을 바다에서 찾고자 한다.

I must go down to the seas again, to the lonely sea and the sky,

And all I ask is a tall ship and a star to steer her by,

...

I must go down to the sea again, for the call of the running tide

Is a wild call and a clear call that may not be denied;

...

I must go down to the seas again, to the vagrant gypsy life,

To the gull's way and the whale's way, where the wind's like a whetted knife:

And all I ask is a merry yarn from a laughing fellow-rover,

And quiet sleep and a sweet dream when the long trick's over.

(John masefield: Sea-Fever)

바다는 유랑하는 집시의 생활무대이기도 하지만 갈매기와 고래와 동행하는 곳이며 칼날 같이 매서운 바람이 있는 곳이다. 그것은 온갖 생물의 서식처이자 각양의 기후현상을 포괄하는 자연 그 자체이며 바다로 가고자 하는 염원은 자연속에 묻히고자 하는 원초적 욕구이자 자연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궁극적인 교향은 자연이며 바다로 가고자 함은 바로 자연으로의 회귀라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3. 내세, 영원의 세계

바다가 삶의 역경으로 지친 육신과 정신의 휴식처로 회구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바다는 또한 영혼의 안식을 위한 영원한 미래세계로서의 이미지로도 자주 나타나 있다. 그것은 인간이 영원하면서도 결코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이며 상상속에서나 그려볼 수 있는 세계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마주 대할" 천국으로 향한 도정이기도 하다.

For tho' from out our bourne of time and place.

박 욱 선

The flood may bear me far,
I hope to see my pilot face to face
When i have crossed the bar. (Alfred Lord Tennyson: Crossing the Bar)

시간과 공간의 한계로 부터 물결이 실어가서 사주(砂洲)를 건너 대면하게 되는 인도자는 곧 신을 의미한다.

이와는 어감이 조금 다르지만 바다 그 자체를 "시간이 감겨드는" 영원 그 자체로 보고 있다.

And yet this great wink of eternity,
Of rimless floods, unfettered leewardings,

...

Mark how her turning shoulders wind the hours,
And hasten while her penniless rich palms
Pass superscription of bent foam and wave, -
Hasten, while they are true, -sleep, death, desire,
Close round one instant in one floating flower.

Bind us in time, O Seasons clear, and awe.
O minstrel galleons of Carib fire,
Bequeath us to no earthly shore until
Is answered in the vortex of our grave
The seal's wild spindrift gaze toward paradise. (Hart Crane: Voyages)

파도가 구비칠 때 시간이 감겨든다는 표현은 밀물과 썰물의 반복을 시간의 계기성에 비유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이러한 시간 속에서 인간의 잠, 죽음, 욕망을 모두 에워싸고 결국 영원성을 동경한다는 것을 바다의 이미지를 빌어 나타낸 것이다.

Edmund Spenser는 연인의 이름을 백사장에 새기는 행위와 그것을 씻어가는 조수를 덧없음과 영원함으로 대비시키면서 그 행위를 "덧없는 연인을 불멸케 할"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연인의 존재를, 혹은 사랑 그 자체를 영원히 존속시키고자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욕구이며 이것이 시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Spenser도 그러한 욕구를 자신의 시에 의해 성취하려고 하면서 영원한 바다의 조수에 의해 사랑하느니 이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부질없는 것임을 그의 소넷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One day I wrote her name upon the strand,
But came the waves and washed it away:
Agayne I wrote it with a second hand,

英美詩에 나타난 바다 이미지

But came the tyde, and made my paynes his pray.
"Vayne man," sayd she, "that doest in vaine assay,
A mortal thing so to immoratlize,
For I myselve shall lyke to this decay,
And eek my name bee wyped out lykewize." (Edmund Spenser: One Day I wrote Her Name)

바다는 거대한 자연의 일부이지만 자연 그 자체를 대신한다. 인간은 자연의 극히 작은 일부로서 그 자연 속에 묻힐 수 밖에 없는 존재이며 인간이 결코 감히 약탈할 수 없는 외경의 대상으로서 대지를 파괴하려 드는 인간의 미천한 힘을 경멸한다.

His steps are not upon thy paths, - thy fields
Are not a spoil for him, - thou dost arise
And shake him from thee: the vile strength he wields
For earth's destruction thou dost all despise, (George Gordon Byron: The Ocean)

따라서 인간의 온갖 문명도 치적도 멸망했지만 바다만이 남았을 뿐이다.
탐식하는 시간, 모든것을 소멸케 하는 시간마저도 바다는 어찌지 못한다.

Thy shores are empires, changed in all save thee--
Assyria -Greece-Rome-Carthage-What are they?

.....

The stranger, slave, or savage: their decay
Has dried up realms to deserts: - not so thou,
Unchangeable, save to thy wild waves' play,
Time writes no wrinkle on thine azure brow --
Such as creation's dawn behold, thou rollest now.

Dark-heaving-boundless, endless, and sublime--
The image of eternity-the throne
Of the Invisible: (Byron: The Ocean)

아씨리아, 그리스, 로마, 카르타고 그 모든 찬란하던 제국들도 다 멸망하고 사막으로 변했지만 바다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 없이 존재한다. 다만 사나운 파도가 유동하고 있을 뿐, 인간의 이마에는 시간과 더불어 주름살을 파지만 바다의 푸른 이마에는 시간도 주름살을 긁지 못한다는 것이다. 바다는 장엄하고 무한한 영원의 像 그 자체이다.

4. 신비의 대상.

시인에게 있어서 바다는 흔히 불가사의 그 자체로 비쳐지고 있다. 먼 우주의 별들이 인간의 끝없는 탐구 욕을 불러 일으키는 것과 같이 인간이 접근해 보지 못한, 결코 정복당할 것같지 않은 바다의 위용에서 비롯된 심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바다밑에는 불가사의한 아름다움이 묻혀 있다고 한다.

Sheer miracles of loveliness

Lie hid in its unlooked-on bed: (Christina Georgia Rossetti:By the Sea)

또한 바다는 낭만적인 옛이야기와 모든 꿈이 떠오르는 곳이기도 하며 인간이 갈망하는 비밀을 간직한 곳이다.

Ah! What pleasant visions haunt me

As I gaze upon the sea!

All the old romantic legends,

All my dreams came back to me

.....

I behold that stately galley

Hear those mournful melodies:

Fill my soul is full of longing

For the secret of the sea. (Longfellow:The Secret of the Sea)

바다는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예지의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A sound mysteriously multiplied

As of a cataract from the mountain's side,

Or roar of winds upon a wooded steep.

So comes to us at times, from the unknown

And inaccessible solitudes of being,

The rushing of the sea-tides of the soul:

And inspirations, that we deem our own,

Are some divine foreshadowing and foreseeing

Of things beyond our reason or control.

(Longfellow:The Sound of the Sea)

그런가 하면 바다속에 전설속의 거대한 바다 짐승 크라켄이 살고 있다고 함으로써 바다가 거대한 수수께

끼의 세계임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Below the hundreds of the upper deep,
Far, far beneath in the abysmal sea,
His ancient, dreamless, uninvaded sleep
The Kraken sleepeth: faintest sunlights flee
About his shadowy sides: above him swell
Huge sponges of millennial growth and height: (A. Tennyson: The Kraken)

바다의 심연속에는 태고의 꿈없고 중단 없는 잠을 크라켄이 자고 있다. 그의 머리위에 수천년 자란 거대한 海綿동물이 부풀어 있다는 것은 바로 불가사의한 미지의 세계를 말함이다.

O wise old sea, mysterious sage
How many secrets do you hold
And ever silently enfold
Within the mantle of your eye?(R. H. Hughson: Reverie)

오랜 연륜을 통해 터득한 노인의 깊은 지혜는 천박한 지식이 결코 흉내내지 못하는 힘이 있는 법이며 그것은 비밀의 창고처럼 무한한 수수께끼를 간직한 바다와 대비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바다는 신비스러운 세계이며 무한하고 거대한 비밀의 저장고로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5. 불안, 슬픔

바다에는 기후 변화에 따라 위험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을 언제나 안고 있으며 따라서 수부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언제나 생명을 담보하게 하는 두려운 존재로 남게 된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변화와 질곡을 동반하는 인생역정에 비유되기도 하지만 또한 그러한 위험에 대처해서 투쟁하고 극복해야하는 불안을 잠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은 정신적 위안이 되며 길잡이가 되어 주는 어떤 전능자의 존재가 없으면 불안과 어둠의 세계를 피할 수 없으며 바다는 바로 이러한 고통을 상징하고 있다.

Lyke as a ship that through the ocean wyde,
By conduct of some star doth make her way,
Whereas a storm hath dimd her trusty gyde,
Out of her course doth wander far astray.

....

So I whose star, that wont with her bright ray,
Me to direct, with cloudes is over cast

Do wander now in darknesse and dismay,
Through hidden perils round about me plast.

(Edmund Spenser: Lyke as a ship)

그러므로 바다는 변덕스러우며 잔혹한 존재이다.

Capricious sea, with scornful zest
How often do you look about
Your hidden store, and single out
Disasters, as in merry jest?

Relentless sea, your every state

I love and fear:..... (R. R. Hughson: Reverie)

바다가 잔혹하며 변덕스럽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사랑하며 또한 두려워한다. 인간이 삶 자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생에 대한 사랑으로 진솔한 삶을 꾸려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이 시인은 두려움의 존재인 바다를 사랑하는 것이다.

얼이 있거나 흐르지 않는 정적인 물과 흘러내리는 동적인 물의 대립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에서 바다는 이 양극단의 이미지를 포함하게 된다고 Mason은 말한바 있다.

Fairly predictably, in the imagery of water the distinction between still or frozen water and flowing water represents the opposition of immobility and change.⁽³⁾

마음의 고뇌가 크고 깊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흐르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정적인 물에 비유될 수 있지만 가벼운 슬픔은 흘러 지나가 버린다. 시인은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악화되어서 흘러가게 되면 그 때 그 슬픔을 노래로 부르겠다는 것이다. 흐르는 물, 조수와 시인의 깊은 고뇌가 대립되어 있는 이미지이다.

The tides flow down, the wave again

In vocal in its woodede walls:

My deeper anguish also falls

And I can speak a little them. (Alfred Tennyson: In Memoriam A. H. H. XIX. 13-6)

*In Memoriam*에서 시인은 죽은 친구의 시신을 바다를 건너 영국땅에 매장하는 과정을 상상하는데 친구의 시신을 싣고 오는 배의 항해가 순탄하기를 기원하지만 그 반대의 불행한 사태에 대한 질은 불안이 깔려 있다.

3) Michael Y. Mason, "In Memoriam : The Dramatization of Sorrow." *Victorian Poetry*, 10, Summer 1972, p. 172.

Than if with thee the roaring wells
Should gulf him fathom-deep in brine
And hands so often clasp'd in mine
Should toss with tangle and with shells(같은시, X, 17-20)

이와 같이 시인의 두려움이 바닷물의 이미지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6. 탐험의 무대

바다가 모험 내지 탐험의 세계로 시에 나타나 있는 것은 그것이 앞에서 말한 미지의 세계라는 데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이 인간을 바다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시인들도 이것을 즐겨 노래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Tennyson의 Ulysse를 들 수 있다. 이 시는 Dante의 "신곡"에서 영감을 받아 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Ulysses는 고향인 Ithaca왕국에 돌아와 답답한 그의 사생활에 불만을 느끼고 다시 바다를 무대로 한 모험의 세계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Come, my friends,
'Tis not too late to seek a newer world.
Push off, and sitting well in order smite
The sounding furrows; for my purpose holds
To sail beyond the sunset, and the baths
Of all the western stars, until I die.
It may be that the gulfs will wash us down;
It may be we shall touch the Happy Isles, (Tennyson: Ulysses)

7. 숙명, 죽음

시인이 바다를 운명적인 존재로서의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이 불가항력적 힘을 행사한다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간의 불가항력의 끝인 죽음의 이미지도 그래서 생긴다고 생각된다.

The Sailors
We, who were born on earth and live by air,
Make this thing pass across the fatal floor,
The speechless sea; alone we commue there,
Jesting with Death, that ever-open door. (John Masefield: The Ship)

바다는 운명이며 배는 말없는 이 운명의 밑바닥을 건너 "언제나 열려 있는 저 죽음의 문을 회롱하며" 나

아간다는 것이다.

Ⅲ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영미시에 나타난 바다 이미지의 다채로움은 바다가 시의 배경으로서 뿐만 아니라 주제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도 바다는 인생 그 자체라는 생각은 영미시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 이미지이며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면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고통과 불안, 궁극적으로는 죽음까지도 포괄하게 되고 이것을 보다 긍정적, 낙천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이겨가야 할, 또 이겨갈만한 도전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

바다는 또한 미담의 땅을 밟아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가 생래적인 것과 같이 인간의 탐험욕을 부추기는 대상이다. 그래서 바다는 곧 미지의 세계라는 인식은 시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또 다른 이미지가 되어 있다. 이것은 낭만시에 특히 두드러져 있는데 낭만주의 자체가 이상향을 꿈꾸고 신비스러움을 추구하는 속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믿어진다.

또한 바다를 고달픈 인생살이를 끝낸 후에 가지는 안식처, 나아가서 영생의 보금자리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 있음을 보았다. 이는 바다 곧 대자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자연 속의 피조물이 소멸되어 돌아갈 곳은 바로 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연관해서 바다는 어머니의 품, 연인의 가슴처럼 따뜻한 안식처의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천국에서 안길 하나님의 품속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물론 이외에도 다른 바다 이미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른 방향에서 보다 더 구체적, 다각적으로 고찰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